

## 文學敎育과 비평인식

金 泰 賢

(順天郷大 獨語獨文學科)

外國文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드높다. 우리 삶의 많은 認面에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국제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어 외국의 풍물과 역사,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문학이 이 땅의 문학관에서나 대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세기 초엽 이후로 줄곧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막대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외국문학에 籍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우월감의 근거가 되었던 것도 아마 이런 시류와 사정 탓일 게다. 그런 만큼 외국문학의 연구와 교육은 변함없이 부러움을 사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통상적인 예상과는 달리 이러한 탄식이 어떻게 거침없이 빈번하게 돌출하고 있는가?

우선 人文科學이 다른 학문보다 경시되고 있는 풍토에서 그 탄식의 遠因을 찾을 수 있다. 모두가 물질적 풍요를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마당에 그것과 긴밀한 유대가 없어 보이는 인문과학이 환영받을 리 없을 터이다. 文學이 학문의 일부로도 편입되고 예술의 하나로도 인정되는 二重的 存在라는 사실에 그 다른 원인이 숨어 있다. 이는 모든 문학의 연구가 다른 학문과 같이 과학적 절차로만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작품에 대한 創造的 讀法을 활용하지 않는 연구는 문학의 깊은 숨결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늘 뼈아프게 체험한다. 비단 연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학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문학이 교육의 대상으로 적합한가라는 회의마저 들 정도로 文學敎育에서도 문학의 이중적 특성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실상은 차라리 묻어두고 싶다는 것이 대학에서 문학을 하는 이의 공통적인 심정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지간한 배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은 허진함과 막막함을 수시로 느낄 수밖에 없으며 탄식도 그 후유증인 셈이다. 그러나 두 요인은 문학의 연구와 교육에 몸을 던지고 있는 사람 모두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유독 외국문학자의 탄식을 촉발하는 주범일 수는 없다.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외국어의 높은 벽, 외국의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줄기에 대한 막연한 이해 그리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외국문학 수용의 任意性이다. 이런 것들이 외국문학의 연구와 교육을 우리의 현실로부터 격리시키며 그 담당자를 피곤하게 한다.

도대체 피곤을 수반하지 않는,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학문이 하루 아침에 가능할까마는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것이 피곤한 일거리라는 깨달음은 그러나 외국문학 전공자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그 고통스런 깨달음은 일시적으로 외국문학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문학의 연구와 교육이 관습적으로 쳐놓은 울타리에서 땀흘거나 도취하여 더욱더 이 땅의 문학 현실과 대중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제어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은 외국문학이 처한 작금의 상황을 적시하고 극복하게 하는 단초가 된다. 즉, 외국문학의 眞境에 가까이 가려는 이들의 원동력이요 출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외국문학의 미래를 위한 외국문학의 현재에 대한 분석이며 반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문학은 한편으로는 그 실상과 가치 이상으로 과장 선전되어 많은 副作用을 초래하였다. 가령, 문학의 알파에서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학 중심의 견해가 풍미하였는가 하면 서구의 신 이론이 무분별하게 소개되기도 하고 무리하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문학이 수다한 난관을 거치며 거둔 과실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 정당한 관심과 평가를 받지 못한 바도 있다. 그 사실들은 아직도 외국문학의 主體的 受容을 위한 시각의 확보와 그 구체적 작업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절실한 일에 批評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외국문학 전공의 비평가가 적지 않다. 이들이 개성과 재능에 따라 이따금 외국문학의 연구와 비평 중 어느 한쪽에 쏠리기도 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그 어느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문학과 한국문학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좀 과감하게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재산이다.

이들은 외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수확한 많은 정보를 비평에 활용하고 있다. 그 많은 정보 중에서도 특히 文學理論은 비장의 애호품이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의 창작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참조하지는 않는다. 간혹 가볍게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상당 수가 이처럼 까다로운 이론에 傾倒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의 창작 텍스트는 그 소문의 파장과 명성의 파고가 어떠한 지금 이곳에서 호홉하고 있는 그들의 심금을 잘 울리지는 못한다. 문학은 시공을 초월해 독자에게 호소하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의 즐거운 읽기를 방해하는 외국어의 촘촘한 그물과 텍스트가 후광으로 삼고 있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가 결국 그렇게 만든다. 그런 한편 비평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혹은 깊은 얕든 간에 이론을 구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런 비평의 요구를 뒷받침하기 쉬운 것이 외국의 문학이론이다. 그래서 그것은 비평에 자주 拘引되고 있다. 어떤 이유든 그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 다가서거나 적극 유치하려 나서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 이론이 어떤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그것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신이 우리의 현실에 삼투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그것이 그들의 비평에서 실제로 얼마나 적절하고도 알뜰하게 소용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여기서 그 번거로운 일을 생각하는 대신에 원천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하자면, 다른 나라의 새로운 이론, 즉 새로운 사고와 방법을 비판적·주체적으로 도입해 자신들의, 그리하여 우리의 비평의 수준을 한 단계라도 더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환영받는다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것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외국에서 빌려온,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사고와 방법일 뿐이라는 것이 노출된다면 결코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거

들 다짐해 두어야 할 것은 외국의 문학회론은 일부 선택받은 사람의 ‘죽보’로 그쳐서도 안 되고, 속은 비었으면서도 결단 번지르르한 사람의 ‘장식품’이 되어서도 아니 되며, 새로운 단을 앞뒤 가리지 않고 쫓는 유행병 환자의 ‘감초’여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언제나 한국의 문학시장을 교란하는 힘의 나라의 비싼 상품이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장을 활기차게 하는 문화의 나라의 고급 문화재여야 한다.

그 이론을 비평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폐습을 벗어나 그것을 비교적 비평에 잘 응용하고 있는 몇몇 비평가의 글이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도 외국문학에서 섭취한 영양소를 時宜에 맞게 또 우리의 체형에 어울리게 활용하는 것은 비평의 내실있는 전진에 무척 긴요한 일이다. 외국의 문학회론에 대한 맹목적 동경이나 거부적 좁은 생각이 비판적·주체적 수용과 활용의 넓은 사고로 전환되지 않고도 우리의 비평이 건강하게 생육하리라고 믿는다면 이야말로 時代錯誤의 迷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하면, 국문학도들이 비평계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체와 독자의 증가, 대학 문학 인구의 급증 같은 과거의 문학 환경과 판이한 현재의 문학 환경에 文學人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일단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유도한 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다. 다름아닌 문학의 創造의 特性이다. 그것은 문학의 연구와 교육이 다른 학문과 같은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기를 요구하며, 특히 텍스트에 대한 독특한 접근을 계속한다. 그 제속을 비평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국문학계에서도 근래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생각에는 비평과 학문으로서의 국문학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국문학계의 상이한 입장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서재나 강단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비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변하고, 후자는 온갖 잡다한 문학적 ‘사건’이 출몰하는 문단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변한다. 그것들은 가령 “문학의 연구가 취급하는 품목이 비평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 연구는 곧 비평일 수밖에 없다”, “문학의 연구가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특히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문학 현장에 비평처럼 지나치게 밀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서 보듯 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선전되고 있다. 그 하나의 주장은 다른 하나의 주장에 대해 때로는 배타적으로, 심지어 적대적으로 그 정당성을 관철시키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하는 것이 현대의 문학회든 현대 이전의 문학회든, 혹은 한국문학이든 외국문학이든 간에 그것이 문학과 관계가 있는 한 그가 비평에 관심을 두어서 앎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더 많다고 나는 믿는다. 얇고 낮은 연구에서 두껍고 높은 연구까지의 수 많은 연구들이 서로 다투듯 얇고 가벼운 비평에서 깊고 무거운 비평까지의 수 많은 비평들이 서로 시위할 수는 있어도, 차원 높은 연구와 차원 높은 비평이 일치한다는 것은 批評의 무궁한 潛在力을 믿는 나의 버리기 어려운 신앙이다. 따라서 비평이 문학의 연구와 교육에 불필요하다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분리시켜 그것의 역할과 역량을 제한하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비평을 통해 문학의 핵심을 벗길 것이냐 하는 데 더 골몰해야 할 것이다. 비평에 대한 인식의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외국 문학계에서만 아니라 국문학계에서도 근래에 한층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